

세계 최초 '드론축구월드컵' 전주서 열린다

시, 세계 최대 가전·IT박람회 'CES 2024' 서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개최 선포식' 가져

전주시는 현지시간으로 10일 세계 최대 가전·IT박람회인 'CES 2024'가 열리고 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Tech West 전시관 Venetian Expo에 마련된 드론축구 경기장에서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개최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노상훈 국제 드론축구연맹 (FIDA) 회장을 비롯한 미국·캐나다 등 FIDA 회원국 대표와 선수 등 40여 명이 참석해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성공 개최를 함께 기원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드론축구를 소개하고 월드컵 일정을 안내하는 화려한 프로모션 영상을 상영하며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드론축구 월드컵에 사용될 공인구를 소개했으며, 초대 챔피언이 가져가게 될 우승 트로피의 화려한 자태를 공개하며 대회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끌어 올렸다.

이와 관련 드론축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보급해온 전주시가 야심 차게 준비 중인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은 전주월드컵경기장 일대를 중심으로 32개국 2500여 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규모의 국제 드론축구대회로 치러지게 된다.

시는 한층 고도화된 드론축구 경기 운영 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올 연



전주시는 현지시간으로 10일 세계 최대 가전·IT박람회인 'CES 2024'가 열리고 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Tech West 전시관 Venetian Expo에 마련된 드론축구 경기장에서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개최 선포식'을 가졌다.

말 준공을 목표로 드론축구 전용 경기장인 '드론스포츠복합센터'를 건립하는 등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드론축구 중추도시인 전주에서 열리는 2025 드론축구월드컵이 전세계 드론축구인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드론축구 중추도시인 전주에서 열리는 2025 드론축구월드컵이 전세계 드론축구인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드론축구 중추도시인 전주에서 열리는 2025 드론축구월드컵이 전세계 드론축구인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드론축구 중추도시인 전주에서 열리는 2025 드론축구월드컵이 전세계 드론축구인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드론축구 중추도시인 전주에서 열리는 2025 드론축구월드컵이 전세계 드론축구인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개인택시연합회는 11일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랑'에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100만원을 기부했다.

"동절기 어려운 이웃에 도움 되길"

전주개인택시연합회,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랑에 성금 기부

전주개인택시연합회(회장 노태섭)는 11일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랑' (이사장 윤방섭)에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금은 전주개인택시조합 회원 중 전주를 사랑하는 회원들로 구성된 전주개인택시연합회 회원 100여 명이 동절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뜻을 모아 마련한 것이다.

노태섭 전주개인택시연합회 회장은 이날 "경기 침체로 어려운 가운데 나눔에 적극적으로 함께해 준 회원들이 너무 자랑스럽다"면서 "앞으로도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전주개인택시연합

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방섭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나눔을 실천해 준 전주개인택시연합회 노태섭 회장님과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면서 "기부해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복지재단은 어려움이 있는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모금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혹한기 온정 나눔에 참여를 원하는 전주시민과 기업, 단체는 전화(063-281-0030)로 문의하면 된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설공단, '근로자 종합복지관' 시범운영

4년 넘게 운영이 중단된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재개장을 앞두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11일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에 따르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시범운영을 진행한다.

보일러 등 각종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다. 이에 일반 시민이 아닌 기존 '메이데이' 정가권 회원만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시범운영 후 개선과 보완을 거쳐 2월 중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재개장하는 게 공단의 목표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의 여가 선용과 생활 편의 증진, 복지향상 등을 목적으로 2005년 3월 건립됐다.

김욱기 기자

시민이 만족하는 행복충만 덕진구 만든다

신년 브리핑... 공감·복지·안전 청정 행정 4대 추진 방향 제시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김봉정)가 올해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 행정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와 재난에 강한 안전한 도시, 자연과 조화되는 행복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덕진구는 11일 신년 브리핑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행복충만 덕진구'를 비전으로 한 2024년도 구정 운영 4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4대 기본방향은 △열린 소통으로 다가가는 공감 행정 △나눔, 배려로 함께하는 복지 행정 △언제나 안심되는 신뢰받는 안전 행정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는 청정 행정 등이다.

먼저 구는 공감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에서 바로 뛰고 보고 듣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는 △'현장 행정의 날' 및 가동 순찰 운영 △고객 만족 '행복출산·안심 상숙' 원스톱 서비스 추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카카오톡 채널 운영 △고품질 맞춤형 세정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한다.

구는 또 따뜻한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틈새계층 및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힘쓰

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는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도 집중한다. 대표적으로 재난·재해 관리 대상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사전 조치를 강화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끝으로 구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청정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녹색 필터 제공을 위한 도시공원 및 하천 정비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한 환경오염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 △생활폐기물 무단배출 취약지역 집중 단속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210억원 규모 지원

전주시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올해 지난해보다 약 38억 원 증가한 210억 원 규모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는 기업이 협약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원한다.

특히 시는 설 명절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접수를 받고, 설 연휴 이전 선정 결과를 통보해 기업들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건설업·부동산업·보건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융자 한도액은 중소기업 3억 원까지, 소상공인은 2000만 원까지다.

융자기간은 2년으로, 연장 신청시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일반기업에는 3%, 여성·장애인기업과 벤처기

업, 바이전주 우수업체, 우수 향토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는 3.5%씩의 대출이자를 보전해줄 계획이다.

희망 업체는 전주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전북경제통상진흥원 본관 3층)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공고문에 명시된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 여부는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운용심의회 의의를 거쳐 결정된다.

융자지원이 결정된 업체는 소정의 서류를 갖춰 시중 9개 금융기관(전북·KB국민·신한·IBK기업·KEB하나·KDB산업·우리·NH농협·수협)에서 2개월 이내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단,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로 신청 이전에 대출 신청 은행과의 자금대출 상담이 필요하다. /김욱기 기자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제10회 무주 반디불배

전국 스키 스노보드 대회

1월 17일(수)~1월 18일(목)

무주 덕유산리조트 스키장

주최 및 주관: 전주매일신문사
전라북도스키협회

후원: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 덕유산리조트

**참가 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신문사)